

경제

光銀 우리금융서 독립·대우일렉 새 주인찾기

내년 지역경제 '쌍끌이 빅딜'

“성사뎀 투자·고용 등 활성화 큰 도움”

내년 광주지역 경제의 최대 핫 이슈는 광주은행 분리매각과 광주에 새 동지를 트는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의 주인찾기 등 지역경제 '쌍끌이 빅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엔 최대한 빨리 우리금융지주를 민영화하기로 하면서 자회사인 광주은행의 분리매각 가능성이 높아진데다, 광주로 백색가전 부문을 이전하는 대우일렉도 내년 8월까지 새 주인을 찾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광주은행의 분리매각 가능성은 이화도로 떠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영화 방안으로는 자회사 분리매각, 인수·합병, 분산매각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금융계에서 이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으로 자회사 분리매각안을 꼽고 있다.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지주의 핵심 기업은 덩치가 큰데다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등 자회사는 자산 규모가 크지 않아 민영화 속도를 내는데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광주은행이 분리매각될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는 ▲금융 및 산업자본의 자본 참여 ▲지방 상공인들의 인수 ▲타 지방은행과의 합병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방안

이 유력하다고 전망하기 힘들다. 금융 및 산업자본의 경우 지방은행 인수라는 부담을 안게 되고 2007년 인수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인수를 모색했던 지방 상공인들은 인수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다. 또 지방은행간 합병도 은행간 이해관계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반면 대우일렉의 빅딜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대우일렉 채권단은 지난달 23일 매각 공고를 내고 오는 22일까지 인수 의향서를 받고 있는데 국내외에서 10여 개 업체가 인수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투자자를 가운데 입찰적격자를 선정, 내년 1월 초 예비심사(6~8주)를 진행한 뒤 3월 중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전에서 광주로 백색가전 설비를 이전하는 문제도 늦어도 내년 2월까지 매듭지어 질 것으로 보여 광주에서 새 주인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옛 대우모터 부지 등에 공장을 증축하는 공사로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대우일렉의 매각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세번째 매각 실적을 경험하면서 정부와 채권단이 조기 매각에 힘을 쏟고 있는데

다, 대우일렉이 가전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춰 매수에 눈독을 들이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껏 쌓아온 '가전명가'라는 브랜드와 생산 노하우, 2년 연속 흑자를 내고 있는 점, 광주공장 중심의 백색가전 부문 집적화가 본격화되는 등 흥행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우일렉은 늦어도 8월까지 새 주인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주은행과 대우일렉의 빅딜이 성사되면 지배구조가 안정화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롯데백화점광주점(점장 구수희)은 16일 송년회 등으로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고객들에게 대구와 생태, 황태 등 다양한 숙취해소식품을 판매하고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술자리 숙취 해소엔...

만사위·차녀 전무 승진

삼성그룹 임원 인사

삼성그룹은 16일 계열사별로 총 380명 규모의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이근희 전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전무가 삼성전자에 신설되는 최고운영책임자(COO) 자리를 맡으면서 부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32명이 부사장에 올랐다. 이 신인 부사장은 전남 발표된 사장단 인사 때 승진 사실이 미리 공개됐다.

상무급에서는 88명이 전무로 한 계단 올라갔고, 부장급에선 총 260명이



<임우재 전무> <이서현 전무>

상무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에선 이 전 회장의 첫째 사위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무와 둘째 딸인 이서현 제일모직 상무도 이번 인사에서 전무 승진자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에버랜드 전무와 둘째 사위인 김재일 제일모직 전무는 올해 초 승진했다. /연합뉴스

지역 기업 자금사정 뻑뻑해진다

정책자금 감축·회수 ... 내년 1분기 악화 예상

정부가 유동성 회수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을 줄이거나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주·전남 기업들의 내년 1분기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상공회의소가 16일 광주·전남 1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0년 1·4분기 기업 자금사정지수(FBSI)'를 조사한 결과 '91(기준치 100)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100)은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중소기업(91)은 기준치를 밑돌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자금사정이 지난 분기보다 '악화된 것'이라고 예상한 업체가 35.2%로, '호전될 것'이라는 업체(15.4%)보다 많았으며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9.5%로 나타났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경제 뉴엔진 '투자유치기업'이 뿔다

'비단향 꽃무' 한방비누 소비자들 사랑 한몸에

생필품도 광주가 1등

비누, 샴푸 등 광주가 만든 생필품도 인기가 높다. 이들 제품은 인체에 해로운 보조제를 넣지 않은 식물성 기름을 사용해 전국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이 '비단향 꽃무'의 천연비누와 샴푸. 고급 식물성오일과 천연아로마오일, 한방추출물 등을 첨가해 만든 고급수제 비누로, 가려운 피부나 아토피 피부에 효과적인 허브 보습비누와 한방 여드름 비누 등이 있다. 특히 이들 제품은 여드름 지성 피부에 좋은 아성초, 삼백초, 대나무 송 등 7가지 한방재를 첨가해 강한 항균 작용으로 지성 여드름 피부에 효과적



<시민생활환경회의가 만든 각종 비누>



<한방여드름 비누>

<아토피 보습 비누>

아토피 예방·탈모 치료 효과

쇼핑몰서 대박 ... 해외 수출도

이다. G마켓이나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 판매와 중국에 이어 내년부터는 일본에 2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맺는 등 해외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비단향꽃무 안연정 대표는 "9년 전, 셋째 딸 아이에게 심한 아토피 증상이 심해 취미 삼아 배우던 천연비누를 아이에게 써봤는데 신기하게도 아토피가 진정된 것이 창업의 계기"라며 "천연재료를 구하기 위해 서울 등지를 돌아다니며 창업을 결심, 팜유나 코코넛, 올리브 포도씨유 등 식물성 오일과 천연 라벤더, 티트리 등 고급 아로마 오일을 첨가해 천연 비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비누에 이어 최근에는 비듬과 탈모 등에 효과가 높은 천연 샴푸도 생산을 시작했다.

환경단체인 '(사)시민생활환경회의'가 폐식용유를 이용해 생산한 비누도 지역민들의 애호품이 된지 오래다. 고희연비누, 황도세안비누 등으로 식물성 기름

으로 만들어 피부 보습력이 뛰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보조제를 전혀 안 넣은 것이 특징이다. 또 천연치료를 함유해 항균작용 뛰어나고 험광증백제, 산화방지제, 화학 합성향 등 인체의 보조제를 넣지 않았다.

광주에서 생산돼 전국 각지로 뿔어나간 이동식 화장품도 있다. '한국그린피어'가 제작한 제품으로 긴급 상황 시 또는 각종 행사 시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 빠른 설치를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안된 차량형 화장실 'Autoilet-S', 평상 시 특정 지역에 설치, 사용되다가 필요 시 현장에 이동·설치해 운용할 수 있는 트레일러형 화장실 'T-720S', 단순한 화장실이 아닌 구역 내 문화공간으로서 최고급재와 설비를 갖춘 첨단화장실 'Dream Pension 2000S' 등이 있다. 최근에는 정확한 고증과 설계로 한옥을 화장실로 변형, 문화재 및 전통 문화공간에 적합한 디자인인 전통 한옥형 화장실도 내놨다. <끝>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중소 금융지원상'

光銀, 대통령 표창

광주은행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중소기업협회 주관하는 '제14회 중소기업 금융지원상' 기관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광주은행의 대통령 표창 수상은 지난해 6월 취임한 송기진 행장의 남다른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애정과 현장 경영, 지속적이고 다양한 중소기업

업 금융지원 정책의 추진에 따른 성과로 평가된다.

광주은행은 그동안 중소기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이나 분할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통해 중점적인 지원을 해왔다.

한편 송기진 행장은 '2009 대한민국 CEO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17일 서울에서 상을 받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Index Name and Value. Includes 코스피지수 (1,664.24), 코스닥지수 (507.01), 금리 (4.25%), and 원·달러 환율 (1,164.90원).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에셋코리아' (Asset Korea)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like location, size, and pric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website URL.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수완지구 롯데마트앞' (Suwanji-gu Lotte Mart) featuring a large property listing with details like location, size, and pric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website URL.